

# 신기술 개발로 광통신 최고의 업체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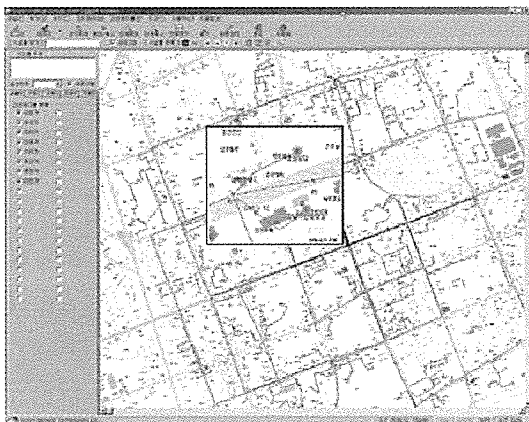
에이엔티(대표 백순덕)는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 설계와 광설로 구축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통신이 투자하는 벤처 기업이다.

##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기술 우수

한국통신연구소 내에서 오랫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0년 3월에 법인으로 설립된 에이엔티는 광통신망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기술 컨설팅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과 공급을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컨설팅 및 설계·설치기술 개발, 광통신 관련 기자재 개발, 광섬유 격자소자 응용기술, 광통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교육시스템 부분 등으로 나누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광통신 종합기술교육과 BOF 기술 등 다수가 특허를 받은 바 있으며, 광통신망 운용 소프트웨어(Oops) 연구개발도 꾸준한 성과를 얻고 있다.



▲Oops (광선로 운용정보 관리 시스템)

“수년간 한국통신 연구소에서 쌓아온 광통신망 구축기술과 설계 분야의 과제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작했기에 우수한 기술력은 자부한다”는 자신감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는 백사장은 “현재 장거리 광선로 망의 품질진단, 광통신 종합교육기술, 광통신망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광통신 엔지니어링 분야 최고의 업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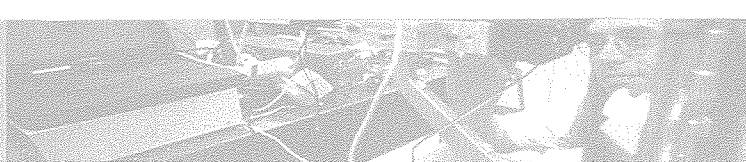
에이엔티는 그동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0년 5월에 광통신종합실습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통신 경기 건설국, 대전 전화건설국, 광주 조선이공대학 등 광통신 기술 교육이 필요한 대학교와 직업훈련소 등에 최첨단의 실습 교육장을 마련하여 많은 광통신분야의 인재들을 배출해 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TDM 전송시스템, 광 분배함에서의 성단, 단심 용착 접속, 광선로 측정 기술 등은 물론, 최근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WDM 전송시스템, ATM-PON, BOF, Recoating 기술 등 최첨단의 광통신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현한 것.

## 광선로 운용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또한 이 회사는 축적된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Oops(Optical Outside Plant Support system: 광선로 운용정보 관리 시스템)를 개발하여 대도시나 전국에 보다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포설된 광케이블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Oops는 Non-GIS를 바탕으로 OOP(Oriented Object



progaming)기술과 ActiveX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광통신망의 신설과 신규고객의 수용에 따른 망 구성정보를 위해 국사 내의 전송장비(FLC, WDM, TDM등), 광분배합(OFD), 광분배선반(FDF) 등의 전송계에서 가입자에게 이르는 완벽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접속함 체내 광케이블의 유희 심선 파악 및 축소·확대에 따른 수치적인 광케이블 길이를 분석·모델링하여 망 구축 설계자료는 물론, 현행시설물의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광통신망의 서비스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또는 금속튜브 내부로 광섬유를 불어넣어 신속한 광선로의 구축이 가능한 BOF(Blown Optical Fiber, 공기압 포설 광섬유)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기존의 광케이블의 선로작업보다 초기에는 70%, 중국기의 수요에 대해서는 20~50% 수준의 망 구축 투자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BOF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설치가 간단하고 신속한 광선로의 구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가입자 망을 비롯하여 빌딩 구내 광통신망, 캠퍼스 네트워크, WAN 등을 구성하는 최적의 기술로서, 광통신망의 설계와 구축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BOF 기술로 아셈타워, 연합철강사옥 등에 FTTO(Fiber To The Office) 구현함은 물론 국내 최초로 FTTH(Fiber To The Home)을 실현했다.

###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노력

최첨단 미래 산업의 꽃인 광통신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에이엔티.

뛰어난 신기술 개발에 앞서가는 벤처 기업이지만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업체”로 인정받는 것이 임직원 모두의 바람이다.

“꾸준한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고객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

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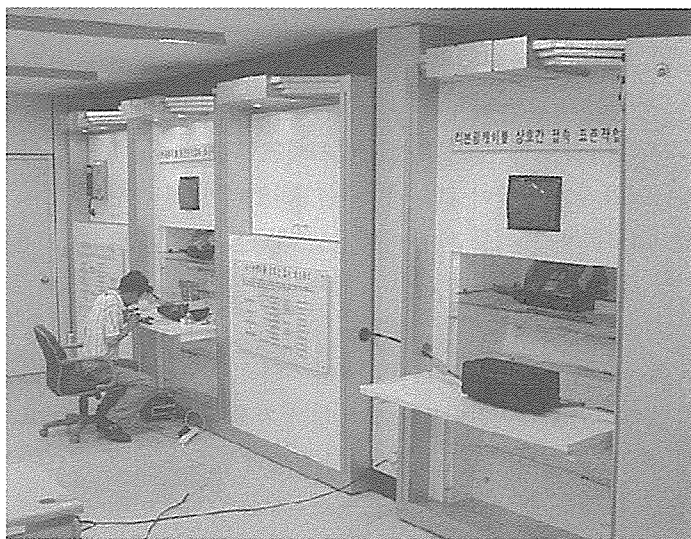
무한히 넓은 세계를 향한 기업의 발전과 확장을 뜻하는 청색과 회사명 이니셜로 채워진 에이엔티의 마크는 연구 개발된 기술의 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동안 광섬유심선 운용정보 관리기술, 단방향 후방산란법(OTDR)에 의한 광섬유 접속손실 평가기술, 일직선상의 광케이블 중간분기접속기술과 같은 특허 기술과 초고속 TDM/WDM 광전송로 구축을 위한 설계기술, ATM-PON 기반의 광선로 구축기술, 광섬유 접속부 리코팅 기술, 광전송로의 전송특성 자동측정기술 등 광통신 네트워크 및 광선로망 구축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수십 건의 기술보유로도 역동적인 우수 벤처 기업임이 입증된다.

에이엔티의 미래 계획은 광통신망 분야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적극 기여하여 광통신 분야의 선두 업체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올해로 창립 1주년을 맞아 광통신분야의 전문기업으로 더욱 분발할 것이라는 에이엔티의 각오는 더욱 새롭다. 보다 빠른 대용량의 광통신으로 국내 광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에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들의 활동을 주목해 보자.

〈취재 / 김현희 기자〉



▲광통신 종합기술교육 시스템